

### 다시 푸는 경서

#### 법구경

##### 도행품(道行品) ④

是爲正覺 시위정각

三定爲轉念 삼정위전념  
棄捨行無量 기의행무량  
得三三解脫 득삼삼갈제  
解結可應念 해결가응념

정진 오로지 정진하여  
바름을 익히고 그른 것 버려서  
제 품 닦아 스스로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된다

삼정으로 한생각 돌려라  
버려야 할 행업은 한량이 없다  
삼정언어 삼독을 없애면  
반연맺힌 것 풀어 비중에 용할 수 있다.

既自解脫 기자해해  
又多學問 우다학문  
漸進普賢 점진보광  
油酪投水 유라투수

이미 스스로 지해를 알고  
또한 학문이 쌓이면  
점차 나아가 두루 퍼지기를  
기름이나 우유를 물에 탄 것 같다

知以成禁惡 지이계금악  
惡性慈樂念 사유혜락념  
已知出成敗 이지출성패  
應應一切解 식의일체해

自無慈意 자무혜의  
不好學問 불호학문  
難進狹小 응축협소  
酪投水 락투수수

제 스스로 지해가 없고  
학문도 좋아하지 않으면  
영기고 좋아하고 작아지기를  
정제유유를 물에 탄 것 같다

계율로써 악을 막을 줄 알고  
지혜로써 사유를 즐기면  
이미 세상의 나쁨을 아는 것  
뜻을 쉬어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리

##### 광연품(廣衍品) ①

施安難小 시안수소  
其報彌大 기보미대  
慈從小施 혜종소시  
受見慶福 수견경복

近道名顯 근도명현

### “바름을 익히고 그른 것 버려서 제품 닦으면 바로 습관이 된다”

배우는 안락이 비록 작더라도  
그 값은 더욱 크다  
지혜로운 이는 작은 배품으로도  
큰 복을 받게 된다.

如高山雪 여고산설  
遠道難求 원도담매  
如收發薪 여야발전

施勞於人 시노어인  
而欲望祐 이욕망우  
殃咎歸身 양구귀신  
自遭慶福 자구광원

도를 가까이 하면 이름 드러나  
높은 뿔 봉우리에 쌓인 눈 같다  
도를 멀리하여 어둡고 어리석으면  
밤 중에 화살겨워 쏘는 것 같다

사람들에게 수고로움을 끼치고  
거기서 큰 복 돌아오길 바라다면  
재앙과 허물이 저를 먼저 찾아와  
크나큰 원망과 맞부딪치게 된다

爲佛弟子 위불제자  
常應自覺 상오자각  
晝夜念佛 주야염불  
惟法思象 유법사상

已爲多事 이위다사  
非非功造 비사역조  
安樂放逸 기락방일  
憚憚日增 악습일증

부처님 받드는 제자 되었으면  
언제나 깨어있어 스스로 깨닫고  
밤낮으로 부처님을 염하고  
법을 생각하고 무리를 생각하라

이미 많은 일 겪었어도  
되잖은 일 또 만들어서  
풍류 즐기며 방탕하게 놀면  
나쁜 습관 날이 갈수록 늘게 된다

爲佛弟子 위불제자  
當應自覺 당오자각  
日暮思禪 일모사선  
樂觀一心 낙관일심

精進修行 정진유행  
習是捨非 습시사비  
修身自覺 수신자각

부처님 받드는 제자 되었으면  
마땅히 깨어있어 스스로 깨닫고  
낮이나 밤이나 선정 닦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한바탕 관하라 龍眼

### 큰스님 수행한담

# “어려울 때일수록

## 벽파스님 (부산 금강암 회주)

###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몸과 입과 뜻으로 선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입춘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맞이하니  
산내 임자에까지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움츠린 마음을 활짝 펴고 가슴 가득 봄  
맛이를 해 보세요. 우리의 경제사정이 어  
떠하든, 우리 마음이 저들과 힘들어도 자  
연은 그렇게 순리대로 봄을 재비하고 우  
리앞에 다가옵니다. 자연은 이렇듯 순리  
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경제한파를 이겨  
가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는 셈이지  
요. 찬 겨울속에서도 곳곳이 건디는 지혜  
가 있다면 언젠가는 저절로 얼음이 녹아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앞에 보여주지 않  
습니까.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의기소침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고 참다운 내  
실을 기할 때입니다.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예전과 비  
교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어려운 것도 아  
닙니다. 지나치게 흥청망청하다 갑자기  
어려워지니 마음적으로 더 고생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본래 없었다고 생각  
하면 어려울 것도 없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였습니다. 어  
느 수행자가 산속에서 방 한칸 겨우 있  
는 조그만 초막을 지어 공부하고 있  
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수행자가 하룻밤  
을 묵어가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 책에는 공부  
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잘 풀리  
지 않는다면 할 때 때 보면 크게 도움  
이 되는 경구(經句)가 많이 들어 있었  
어요. 그 수행자는 어려울 때마다 그 책을  
보며 아주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도 소중  
하니까 그냥 풀 수 없어 벽에 선반을 매  
어 그위에 올려 놓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쥐가 그 책을 잡아 먹곤 해요. 가만  
히 두면 큰일나겠거든요. 쥐를 잡기 위해  
고양이를 한마리를 데려왔어요. 고양이를  
키우니 쥐가 없어 좋기는 한데 고양이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우유를 쥐  
야 하니 우유를 위해 소를 한마리 키우  
고, 이렇게 가축이 늘어나니 혼자 살림을  
할 수가 없어 여자를 하나 얻었죠. 그런  
게 몇년이 지나고 나니 그사망 주변에는  
아내와 아이들, 가족, 논 밭들이 쾅쾅  
떨려 눈을 뜨면 그 뒷차터거리에 그

만 정신을 뺏겨 버리고 말았던 말이죠.  
너무 한심해서 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곱  
곰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신 없이 먹고 사는데만 집착  
해서 살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따져 들  
어가니 그 책이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작은 집착이나 애착을 가지게 되면 큰  
욕심, 큰 집착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과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  
니 어려울 때일수록 사소한 욕심, 작은  
집착부터 자꾸 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 1936년 충남 생
- 1959년 법어사에서 제운스님을 은사로 출가
- 1973년 법어사 주지
- 1975년 총무원 교무부장
- 1978년 법어사 주지
- 1980년 조계종 총무원 부원장
- 1987년 원효학원 이사
- 1990년 법어사 주지
- 現 금강장학회 이사장



### 무슨 일이든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짜증이나 원망 사라지고 오히려 사명감·책임감 생겨요

삼독심을 버려야하는 까닭은 놔두면  
탐·진·치가 커져 본성을 헤치기 때문  
입니다.

나는 3년전부터 생식을 하고 있어요.  
생식을 하면 익힌 음식을 먹지 않으니  
먹는 즐거움을 비운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비우니 잡자고  
싶은 욕망이 저절로 줄어들고 색에 대한  
욕망,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망 등이 자  
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그러나 한가지 집  
착이나 욕망을 비워내면 다른 것들은 순  
차적으로 따라 비워지기 마련입니다. 물  
론 일상에서는 생식을 한다든지 하는 것

이 어렵겠지만 생활중에 가능한 것부터  
집착, 욕망을 비우는 연습을 하면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  
무리 좋아도 그것은 길을 제시해주는  
것일뿐 대신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야함경〉에 보면 부처님께서서 목건  
연과의 대화중에 “나는 무상안온의 경지  
가 있고 그곳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알  
려주는 것일뿐 그곳에 이르고, 이르지 못  
하고는 각자에게 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전지전능의 구제자가  
아니라 길을 안내하는 스승임을 잘 말해  
줍니다. 작은 집착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론으로는 잘 알지만, 행하고 안하고는  
각자 본인에게 달랐다는 말입니다.

나는 22살때 통도사 극락암에 가서 한  
5개월정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모친 친  
구분께서 극락암을 소개해 주셔서 지내  
게 되었는데 그 당시 경봉 큰스님께서서  
주석하고 계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니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서울서  
왔습니다” 했더니 “여기 뭐하러 왔느냐?”  
하시길래 “있을려고 왔습니다.” 했죠. 또  
스님께서 “너, 그럼 서울서 오기 전에 어  
디서 왔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어요. 감  
자기 대답이 막혔습니다. 그때 무척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  
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후 하루도 빠짐없이 경봉스님 법문을  
들었어요. 지금도 유난히 기억되는 것은  
스님의 행(行)이었습니다. 산중 암자  
인지만 여름에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데 경봉스님은 아무리 모기가 와서 피를  
빨아도 절대 쳐서 죽이는 법이 없

###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인하 하였습니다.



#### 가격 인하 단행!!

● 외관 위기의 우리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였습니다

####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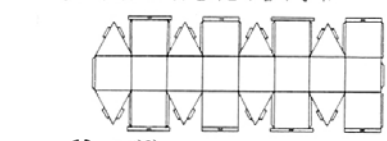


◆ 연등조립용(8cm 10cm) ◆ 조립용위에 연일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77-1548 H:(016)552-9360

###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마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입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 펼친 상태(풀조 및 인쇄결집 하지 방식)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 현우기획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 반야심경



운장법사의 筆筆(眞品)  
佛子體의 神祕를 최초로 공개



금강경, 법구, 다리니, 각종 불서, 범품

● 정통으로 배우는 시경예를 실용·수련생·모집, 사경준제와  
같이 있고 법과 대가 있습니다.(신신도 가능)  
반야심경, 법화경, 모든 경전 서예 수장품 특별지도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 (02)242-0331, 242-0255  
(02)216-0307

●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硯會

##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 민속 홍화씨

작목반 박래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